

봉사하는 불교 실천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전 본산시 인산면 송정리

법어 조대 석주 스님 칠보사 조실

"죽음이란 본래 없어. 우주만물이 다 불생불멸인데 죽음이 어디 있다. 집착을 해서 윤회의 굴레를 벗지 못하여 죽고 나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은 문자와 말에 의지해 그 진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니 역경불사건 전산화 불사건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해야지."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대구 성도절 법회 '따로'

지난 5일 대구시 프린스 호텔 리전시홀에서 열린 대구시 일요년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에는 원로 화산 원명 스님, 동화사 주지 성덕 스님, 각 신도단체장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모여 화기에애한 모습으로 일요년 하례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날 많은 스님들이 신년 덕담을 했는데 그중 무궁 전 동화사 주지스님의 말이 유독 귀에 들어왔다.



스님은 "올해 부처님 성도절 법회를 동화사 교구와 사원주지연합회가 각각 따로 개최하는데 내년에는 분기화하여 화합해 함께 봉행했으면 좋겠다"는 오지의 말씀을 했다. 또 "내것만 챙기자는 데서 불화가 생기고 남혐담 하는데서 불화가 생기겠다. 올해는 선거가 많으니 더욱 화합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부처님이 대각을 일으킨 날 월 8일 성도절, 6년 고행 끝에 셋발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도절 법회를 사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념하는 곳이다.

이경숙(취재 1부 부장)

조계종 '군포교 진흥의 해' 지정

포교원-군불교위-포교사단-군불교진흥회 '한마음' ... 본 말사 후원회도 구성

군내 종교별 신도수는 불교 15만(28.2%), 개신교 30만3천(56.6%), 천주교 8만(15%), 종교시설은 법당 379곳, 교회 921곳, 성당 268곳이 있다. 공식적인 군지원 예산은 조계종 3억, 기독교 군선교연합회 90억, 천주교 군종교구청 35억원으로 열세에 처한 군 포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장년층 가사불교의 향배를 좌우하는 군불교의 이같은 열악한 포교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 스님)은 5일 총남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군불교진흥회 출범 원년인 2002년을 '군 포교 진흥의 해'로 정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포교원은 군 법당(대대급)까지 700곳 추산의 종단 등록사업과 군불자의 신도등록 및 교육, 군 간부 3만명 및 장병 5만명 전산화, 1500여 불자 사관생도 신형지원 등의 사업을 펼친다. 또한 지난해 시도된 군승자원 전담 및 관리, 군종행 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교구 본말사의 체계적인 군 불교 후원시스템(네트워킹)을 처음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법당 통일설계인 마련, 불교 군종사 4000명과 군법당 총람 및 통일예배집 발간, 군승단복 및 군종행 단체복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스님)도 자체적으로 일요법회 및 장교 가족법회 지원, 간부 및 사관생도 불자 확보 주력, 군법사 활동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매년 7만여명에 이르는 군불자 수제인원을 30%이상 늘리는 등 신도수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포교사단(단장 김대중) 군포교특별위원회(위원장 한연수)는 25개팀 2백명의 포교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60개 법당 수를 80개소 이상(30%)으로 확대하고 월4회 일요법회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포교 기금' 조성, 년2회 군포교 담당 포교사 워크숍 개최, 군포교 지도교안 제작 등의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군불교진흥회(회장 장각스님)도 월 2회 부대 위문법회를 실시하고 군포교지 원간(법문)을 1만부씩 발행하는 한편 수계식 지원을 6만에서 8만명으로, 군법사 해외연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gkim@buddhapa.com



성불도 놀이하는 새싹불자 20일 부처님 성도제일을 맞아 전국 사찰과 단체들이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참여한, 일일승가, 참회법회, 고승법문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 지난 10일 개운사 선무도원에서 성불도 놀이를 하며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배우며 스님과 어린이 불자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고영애 기자

혜암종정 사리 86과 수습

6일 해인사에서 다비식 ... 3만 대중 '애도'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 대종사의 영결 및 다비식이 6일 해인사에서 3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종단장으로 거행됐다.

전국 본말사에서 동시에 5번의 타종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의 영결법요, 종회부의 장 종신스님의 영장소개, 육성법문 청취,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 추도사, 영결사, 조사, 헌화 및 헌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정대중 스님은 영결사에서 "90년대 종단 변화와 개혁 속에서 스님의 원력과 뜻이 있어 이제 종단은 안정되고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니 그 슬픔은 끝이 없다"며 애도를 표했다.

종회의장 지하스님, 김대중 대통령,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한광숙 민주당 대표, 박창기 중앙신도회장도 조사를 통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7일 공개된 혜암 스님 사리. 법과 원력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사리다. 영결식 후 사부대중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가운데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거행됐다.

☞ 관련기사 4·11면

한편, 7일 혜암 스님의 영결 등에서 총 86과의 영통한 오색사리가 수습됐다. 혜암스님 사리는 13일부터 49대인 2월 17일 까지 원당암 미소굴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직지심경' 영인본 특급호텔마다 전시

문광부 "한국문화 상징" 월드컵을 앞두고 이르면 내달부터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略)이 전국 60여개 특급호텔에 전시된다.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은 10일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앞선 우리 인쇄문화를 알릴 수 있는 직지심체요절과 팔만대장경 등을 호텔에 전시해 외국인들에게 문화국가로서 강한 이미지를 심겠다'고 말했다.

박양우 관광국장은 "직지심체요절과 팔만대장경 영인본 외에도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전시물을 선정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형 기자

태고종 개혁 본격화

17일 종회 종헌종법 개정안 등 심의 선거자격과 선출 절차 개정 등 종단의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위한 대폭적인 종헌종법 개정안에 들어간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장은 △총무원총 임금지 가처분 △종명(宗名) 사용금지 가처분 등 그동안 제소했던 민형사상 고소건을 11일부터 모두 취하하고 비상대책회의 촉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등 태고종 대 화합을 위한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gkim@buddhapa.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교와 선거

1. 금년 각종 선거와 관련 불교계 종단 대표들이 '중립선언'을 할 필요 있다고 보십니까?
①해야 한다 ②할 필요 없다

2.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는 빈도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참석해선 안 된다 ②참석하되 정치색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③참석해 정치적 선전을 밝히는 것도 무방하다

설문 참여: 1월 16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제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를 현대불교 353호 9면에 실습니다.

人事 말씀

四十九齋案內

慧菴堂 性觀大宗師 四十九齋를 다음과 같이 奉行합니다.

一 日 一 齋

장 소	일 시
초재	해인사 대적광전 1월 6일 오전 10시(음 11.23) 일요일
2재	" 1월 13일 오전 10시(음 12. 1) 일요일
3재	" 1월 20일 오전 10시(음 12. 8) 일요일
4재	" 1월 27일 오전 10시(음 12.15) 일요일
5재	" 2월 3일 오전 10시(음 12.22) 일요일
6재	" 2월 10일 오전 10시(음 12.29) 일요일
49재	" 2월 17일 오전 10시(음 1. 6) 일요일

☞ 문의: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해인사 ☎(055)931-1001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해인사 원담암 ☎(055)932-7308

大韓佛敎 曹溪宗 宗正 慧菴堂 性觀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護 喪 法 進 葬 儀 委 員 長 正 大
執 行 委 員 長 世 民 門 中 代 表 智 官
門 徒 代 表 성 법 門 徒 一 同